

포스코켐텍, 경쟁력 약화 우려는 기우

우리투자증권, 포스코의 조강 생산능력 확대로 ... 주가 과도하게 하락

포스코켐텍의 현재 주가는 과도하게 하락한 수준으로 저가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우리투자증권이 4월13일 주장했다.

우리투자증권 김영옥 연구원은 “현재 포스코켐텍의 주가는 2010년 하반기 화성부산물 사업 시작 전보다도 낮은 수준”이라며 “현재의 주가는 과도하게 하락한 것”이라고 진단했다.

또 “포스코가 세계 톱3 수준까지 조강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포스코켐텍의 해외진출 기회 증가는 기존 사업부문의 견조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아울러 “포스코가 본업에 주력하는 한 포스코켐텍의 경쟁력 약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”고 지적했다.

우리증권은 포스코켐텍의 투자의견 <매수>와 목표주가 26만원을 유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13>